

광주형일자리 ‘GGM’ 후임 대표 선임 난항…왜?

중앙부처 장·차관급 등 다각적 접촉…대부분 고사
원만한 노사관계·하자 없는 품질관리 등 짐 버거워
내년 중대재해법 첫 적용, 대표 책임 커 부담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2대 대표이사자 다음달 초에는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지역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박광태 GGM 대표가 후임을 찾지 못해 당분간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와 GGM 등은 박 대표 임기 만료전 중앙부처 장·차관급 인사 등을 접촉했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월3일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차기 대표를 뽑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지만, 아직까지 후임 대표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 노동계를 포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 위탁업체인 현대차(2대 주주)와 주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3대 원적으로 삼아 적임자 찾기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현재까지 중앙부처 인사를 포함해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됐다고 이야기

가 무성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2대 대표이사의 역할이 막중하고 험난할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후임 대표이사는 여계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상생형 일자라인 GGM은 원만한 노사관계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는 노사협의체 형태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과 민주노총 급속노조 가입 가능성 등으로 노사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임 대표가 노사 문제에 경험이 없다면 상당한 버거운 자리가 될 수 있다. 양산체제에 들어 간 경차 ‘캐스퍼’의 무결점 품질관리도 GGM 순항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신입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에 숙

련도 낫다는 점은 품질관리에 비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이다. 더욱이 현재 자동차 생산공정을 전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말쯤 순차적으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이를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제 1대 박광태 대표 체제가 광주형 일자라인 GGM을 출범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경력 등을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적임자였다면, 2대는 현장 실무형 대표가 적임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라면 현대차나 기아차 등 자동차 메이커 출신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혈세로 만들어진 GGM에 또 현대차나 기아차 출신”이라는 비판적인 프레임이 광주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면 후임 대

표 선임에 난항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내년부터 적용될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났을 경우 대표가 인신 구속까지 가야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도 새 대표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제2기 GGM 대표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함께, 품질관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면서 “GGM이 광주의 새로운 자동차메이커로 장기적으로 순항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GGM 대표이사의 임기는 정관상 2년으로, 주주간 협약으로 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 출자)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광산구, IPTV 채널 활용 노인여가프로그램

광주 광산구는 경로당에 설치된 IPTV 광산구 전용 채널을 활용해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노인의 온라인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관내 경로당 366곳에 와이파이(WiFi)와 IPTV를 설치했다. 이 중 광산구 전용채널에서 낙상예방, 치매예방 운동법,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광산구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등이 참여해 매달 편성표를 구성, 주 5회 요일별 프로그램을 보내고 있다. 특히 10월부터는 41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면 여가 프로그램은 30여 곳에서만 진행됐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노인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 동네 경로당 소개코너’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을 시청하려면 IPTV(전용리모콘) #4839로 누르면 된다.

임행택 기자

김영록 지사, 순천만정원 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반영, 전시·경연대회 참가규정 제정,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임용 심사위원회 추천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년 반 가량 남은 국제정원박람회 박람회장 조성 및 박람회 운영계획 등 준비상황을 살폈다. 이사회에는 김영록 도지사, 허석 순천시장,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용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이흥우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10명의 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순천이 세계 정원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제2청사’ 기능동부권 통합청사 첫 삽

김영록 지사 핵심사업…“준공 맞춰 국단위 기능 추가 이관



전남도는 18일 순천 신대지구에서 민선7기 김영록 지사의 핵심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서동용 국회의원, 김한중 도의회의장과 도의원, 동부권 시장·군수 및 시군의장,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청이 지리적으로 서부권에 치우쳐 있고, 현재 동부지역본부에 민원업무 기능이 충분치 않아 동부권 도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8년 9월 동부권에 흩어진 도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다목적 청사를

건립해 동부권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도 향유할 열린 공간으로 만들라고 지시해 통합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사업비 387억 원을 들여 3만 24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1만 3천㎡로 건립, 오는 2023년 5월 개청할 예정이다. 미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31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810대의 주차장을 갖추고, 동부권 주민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망과 연결된 스마트민원실이 들

어선다. 대강당, 북카페, 다목적전시실, 열린회의실, 도심정원 등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휴식 공간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를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건물 탄소제로 건물 의무화 등 강력한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권 통합청사를 전남도 탄소제로 제1호 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고단열·고기밀 건축시스템을 적용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며, 추후 옥상녹화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동부권은 7개 시군의 도민 47%가 거주하고 있고 산업, 경제, 문화 측면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지역”이라며 “준공에 맞춰 도의 국단위 기능을 추가로 이관해 통합청사가 동부권 발전의 디딤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동부지역본부는 2005년 10월 동부출장소로 출발해 환경업무와 산림업무를 이관받아 6개 부서 12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통합청사가 준공되면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19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동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개관 기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수난사고·지진·화재 체험’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개관

8개 체험구역·23개 체험시설

‘집중호우·수난 사고·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공식 개관했다. 광주시는 북구 오치동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에 8개 체험구역, 23개 체험시설로 구성됐다. 지하 1층은 어린이 안전 구역으로 화재 등을 대비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층에서는 각종 자연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대우관, 산악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 시설이 설치

됐다. 2층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요령 등을 습득 할 수 있으며 3층은 응급상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가스안전체험시설도 설치돼 도시가스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도시가스 냄새 맡기, 계량기 점검 방법, 가스누출 확인 방법, 보일러 상태 확인법,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법, 캠핑족의 안전 가스 사용법, 가스 안전 퀴즈 체험을 할 수 있다. 각 체험은 구역별로 20명 이하로 진행되며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 체험 횟수와 인원은 조정된다.

서선옥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